

동원인성교육 좌담회

- 주제: 총6회의 동원인성교육집담회를 마무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제시
- 일시: 2016년 2월 2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호암교수회관 파인룸
- 참석자: 이인규 교수님(자연대 생명과학부),
정하우 교수님(농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진교훈 교수님(사범대 윤리교육과),
최종태 교수님(경영대 경영학과),
최대권 교수님(법대 법학부),
황경식 교수님(인문대 철학과),
이정인 교수님(공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우한용 교수님(사범대 국어교육과),
이종흔 교수님(치대 치의학과),
박승재 교수님(사범대 물리교육과),
김병동 교수님(농대 식물생산과학부)
이상준 간사 총 12명



● **이인규:** 이제 우리의 긴 집담회를 마무리 하려합니다. 녹음만 하고 촬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음을 했다가 간사가 타이핑하여 돌리기로 했으니 각자 스스로가 한 이야기들을 첨삭하여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담회 1회부터 마지

막까지 전부 녹음 및 녹화가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녹음 및 녹취하여 회보에 넣을지의 여부를 편집위원장님과 상의할 것입니다. 활용이 될 것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록적인 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취하려 합니다.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자기 성함을 말씀해주셔야 간사가 녹취 시 참고가 되므로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전제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골을 목표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최종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발성과 자기 성찰과 자기 첨삭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섯 번의 집담회를 하고나니 의외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동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문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보다, 결국은 인성문제가 교육이고 실천이므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여 실질적으로 구현화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집담회 때 황경식 교수가 '명예교수 인성교육 봉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며 실천적 과제 몇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가 실제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하는 점, 두 번째는 법제나 정책제안 및 자문의 역할, 세 번째는 중고교 일반 및 대학에 대한 교육봉사, 네 번째는 개인적 상담이나 멘티-멘토링, 다섯 번째는 기본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초자료로 공유하자는 것, 여섯 번째는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을 이루어서 활동 가능한 조직 및 지원의 확보, 이런 여섯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제 없는 자유로운 토론을 시작 할 테니 어느 분이든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종훈:** 치의학대학원 명예교수 이종훈입니다. 인성에 영향을 주는 뇌 과학 지식이 인성 교육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은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 본능행동(instinctive behavior)은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인데,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섭식 행동, 음수 행동 등 살아가기 위한 행동이 필수적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투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신생아는 배가 고플 때 울음으로 의사 표시를 합니다. 종족 보존은 성 행동과 집단행동으로 자기를 닮은 사람을 세상에 남기려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이를 관장하는 영역은 변연계(limbic system)인데, 이 구조물은 신 피질 밑에서 뇌간 사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그 중에서 편도체가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에 관여하며, 부위에 따라 corticomedial amygdala와 basolateral amygdala로 나뉩니다. 전자(corticomedial amygdala)는 후각, 미각 및 장기감각을 받아서 시상하부의 생리적인 기능인 내분비를 조절합니다. 후자(basolateral amygdala)는 대뇌피질에서 잘 처리된 시각, 청각 그리고 체성감각을 받아서, 시상하부의 행동적인 기능인 생식 행위, 섭식 행위, 음수 행위, 위 장관과 심혈관계 기능에 관여하고, 특히 인간의 덕목인 지성적이고 사회적 행동과 감정 표현에 관여합니다.

정서 행동은 인간의 본능이 만족인지 불만족인지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인데, 만족

일 경우에는 쾌감을, 불만족일 때는 불쾌감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불쾌감이 공포로 느껴질 경우 그 상황으로부터의 도피 반응을 보이고, 분노로 느껴질 경우에는 공격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정서 행동을 관장하는 영역은 변연계 중에서 해마 형성체(hippocampal formation)로, 여러 차례 처리된 시각, 청각 및 체성 감각의 정보를 후두엽, 측두엽 및 두정엽의 연합피질을 경유하여, 동기 유발의 기본이 되는 학습, 기억, 각성과 정서 행동에 관여합니다.

인간의 삶은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내부 환경을 끊임없이 조절하여, 내부 환경을 항상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를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합니다. 환경의 변화를 자극이라 하고,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할 때는 유익한 자극(유익한 스트레스), 해롭게 작용 할 때는 해로운 자극(해로운 스트레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해로운 자극일 때 스트레스란 용어를 쓰고, 주로 정신적이거나 정서적인 자극 일 경우에 강조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소리지만, 좋은 연주나 노래 소리는 뇌 속에 존재하는 내측 전내측, 중격핵, 시상하부의 후부, 중뇌의 피개 등과 같은 구조물의 활성화로 기쁨을 주는 유익한 자극이 되지만, 반면에 자동차의 경적소리나 공장에서 나는 소음은 복측 시상과 시상하부의 복내측 등의 구조물의 활성화로 불쾌감을 일으키는 스트레스(해로운 자극)가 됩니다.

인간은 본능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권력과 돈과 같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욕망이 지나치면, 가정, 사회, 문화, 경제 등 각 분야의 질서를 파괴하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구조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전통적인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 질서로 재편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도 고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에 맞는 교육을 더하여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직업 설문조사에서, 고소득자인 예체능인, 요리사 같은 직업이 인기입니다. 이는 방송 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도덕성, 사회성과 집단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는 실험에서, 변연계의 양측 편도체를 절제한 동물에서는, 성행위가 암수와 대상의 구별 없이 지나치게 증가함을 보이고, 편도체, 해마 및 이상엽을 절제한 동물의 암컷에서는 모성 본능이 없어져 새끼를 돌보지 않으며, 집단행동이 결여됨이 관찰됩니다.

큰 사회 문제인 성추행이나 성폭행 그리고 아동 학대등도 변연계의 비정상이 큰 원인의 하나임을 인지하고, 인성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 **이인규:** 네 말씀 감사합니다. 토론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 안배 부탁드립니다.

● **황경식:** 교수님의 말씀은 기초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은 컨클루딩 디스커션이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가지고 액션플랜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단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이인규 교수님의 의견과 연결하여 말씀드리자면, 또한 이종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은 인성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야말로 아나 킨 상태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은 비록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에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리스펙트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라는 말도 붙어있으므로 명예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쉽게 연계가 되고,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뉴스벨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교수님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해서 여섯 가지 액션플랜을 짰습니다. 그 후에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서 제 생각을 보태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마지막 집담회에서 중요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을 먼저 하기보다도, 우선 서울대학교 내의 많은 문제를 갖고 힘들어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 우리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는, 그러나 현직 교수들이 시간상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교내에 이런 일들을 관리하는 부서나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조하여 위와 같은 학생들과 멘토-멘티 인성개인지도 액션플랜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쉽게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과 부모는 누가 가르칠 것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전 명예교수의 이름을 걸고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행해도 좋겠지만, 인성 어머니교실, 인성 아버지교실을 연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들이 매스컴에 나오면 틀림없이 부모님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면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국·영·수 점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성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프로그램으로 어머니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유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만의 백그라운드 하에서만 이야기를 하면 자칫 아니한 것만 못하게 되겠죠. 사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철저히 짜야 합니다.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어떤 덕목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공유하는 워크숍 과정을 철저히 거친 뒤, 합의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능하면 기본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거기에 각자 자기전공을 양념으로 첨가하는 식으로 붙여서 하는 거죠. 그러나 베이직 매뉴얼은 공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일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비용도 필요하고, 인성교육 위원회를 위한 실질적인 직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멤버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고, 비용은 초창기에

는 자발적인 각출이나 도네이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후 매칭펀드가 생기면 사회 곳곳에서 관심을 갖는 분들의 스폰서도 생길 것입니다. 그런 회사를 끌어내기 위해 우리 나름의 마중물 즉 도네이션이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 **이인규:**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 **정하우:**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정하우입니다. 인성교육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연령별로 구분하고, 우리가 대상을 젊은이들만이 아닌 학부모와 어린아이까지 가르칠 수 있도록 내용을 집약해야 합니다. 각각의 동떨어진 내용을 서로가 이야기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13살 이전에 인간사고의 형태가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부터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하는 것을 가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의 교육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황경식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삼강오륜, 신언서판 등이 있습니다. 신언서판의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보태어 행동(skill) 정도를 추가한다면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기에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가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전통, 족보에 대한 전통, 한국인이라는 전통이 전부 희미해졌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내 것을 세계화하여 문화적 접근을 해야지 남의 것을 종속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순화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키워줘야 하겠죠. 그 속에는 언어교육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3개 국어를, 네덜란드는 5개 국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도 세계화 되었을 때, 이런 언어 교육도 포함해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질서가 흐트러진 원인을 저는 올바른 법질서나 올바른 국가관의 인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국가보다 민족을 우선시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먼저입니다. 민족을 앞세우면 남북이 함께 상정되어 혼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요즘은 사회가 다문화적인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속하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우리의 커리큘럼 안에 포함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가정단계, 대학까지 포함한 학교단계, 청년과 노인층까지 포함한 사회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면 일을 추진하는데 빠른 접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인규:**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 **최대권:** 법과대학 명예교수 최대권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전부 서울대학교출신입니다. 다들 서울대학교에서교수생활을 오래 했지요. 우리가 사회 전체를 놓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가장 접근하기 쉬

운 서울대학교를 놓고 다른 곳을 먼저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허황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모색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고급공무원이 되는 비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지요. 공무원뿐만이 아니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퍼센테이지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 여기를 빼놓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학생들을 상대로 교양강좌 인성교육 강좌 등을 개설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직교수들을 상대로 하여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아이들을 잘못 가르친 부분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함)

하지만 그분들께서 참여나 협조에 회의적인 듯싶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을 제쳐놓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대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조금은 회의적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성교육을 기존의 유교적인 가치관, 전통적으로 익숙한 질서 의식과 결부시켜 얘기합니다. 허나 우리는 동시에 백여 년 전에는 없었던 커다란 국가, 기업, 단체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이것을 조절하는 문제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 이것들이 개발이 잘 안 되어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아무리 부패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즉 자기 소집단에 대해서는 좋은 인성을 발휘하여 잘 하지만, 더 큰 집단 안에서는 자기가 속한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더 큰 집단에 대해 그렇지 못하고 부패를 저지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집단의 이익과 더 큰 집단의 이익 사이의 충돌의 문제는 어느 집단에나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인성교육+공사를 구분하는 교육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기가 속한 소집단에 대한 충성이 충돌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화하느냐의 문제, 즉 국가에 대한 생각, 개인이 국가로서 생존하는 것 이것들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으로 이민하면 편하게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곳에서 살고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 나와 대한민국이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의식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즉 소집단의 인성교육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의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지도자가 잘 한다면 아랫사람들도 따르겠지요. 그래서 지도자 교육에 대한 것을 인성교육과 결부시켜 모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공과 사, 자신이 속한 큰 집단에 대한 충성, 소집단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자님의 이야기에 이런 것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쳤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느냐 마느냐의 일화이지요. 나라마다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도 다르고 일본도 다르지요 하지만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은 알밋기도 하지만 개인이 국가

를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일본은 위의 일화를 들으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고발해야한다고 할 것이라고 제 어느 은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웃음) 우리는 살며 이런 가치충돌의 문제에 항상 부딪힙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도자 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 대상을 누구로 하든간에, 위와 같은 생각을 늘 한 것이죠. 지도자의 솔선수범과 책임감, 자기희생정신 이런 것들이죠. 솔직히 지도자가 자기희생도 안하고 어찌 공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희생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양에서 말하는 시민의식입니다. 이것을 리더십과 결부시켜 생각하면 좀 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도자의 덕목이 나오겠죠. 솔선수범 정직 책임 성실 희생정신 공과사의 구별 ... 등등이죠. 이런 매뉴얼을 갖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외부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처한 나쁜 조건이, 사회구조가 상당히 변했다는 겁니다. 대가족 제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소위 말하는 집안(또는 밥상머리)교육들이 불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배우지 못한 부모들 또한 밥상머리 교육을 하기 힘들겠죠. 즉 여건이 너무 나쁜 겁니다. 또한 부부는 모두 바빠 일하고 아이들은 학원에 학교에 그래서 서로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이게 가능한 집은 아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모 중 한 분이 집에 계신 그런 집일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 할 때, 차라리 장차 지도자가 될 대상군을 상대로 하여 프로그램을 짜야 하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법률지식을 가르쳐 주면 범죄에 활용할 것입니다. 심지어 헌법도 나쁜 목적으로 얼마든지 지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학문과 관련해서도 인성과 결부시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을 생각할 때,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변호사는 각자의 클라이언트를 위해 가장 유리한 변론을 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대한민국과 국민의 관계로 치환했을 때, 대한민국에 가장 유리한 법률을 개발하고 가장 유리하게 법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까지는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이론, 학설, 판례를 법조인 스스로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책무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더 큰 공동체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학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인성과 관련된 일이라고 봅니다. 최근 통진당 문제 등의 정치문제만 보아도 솔선수범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요. 학문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또한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 **황경식:** 최대권 교수님께서 좋은 논점들을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각자 의견개진도 중요하지만 디스커션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이야기를 시작하면 교수들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교훈:** 그것은 사실입니다.
 - **황경식:** 왜냐하면 단대 내에서도 정년퇴직한 교수들의 이야기를 현직교수들이 그다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 **최대권:** 안 들죠.
 - **황경식:** 그러니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문제학생들과 멘토멘티를 맺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현직교수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거나 동참해주거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직교수들을 타겟으로 하면 스타트에서부터 무산될 것입니다.
 - **최대권:** 그래서 제가 학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이인규:** 좋습니다.
 - **황경식:**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인성교육은 뭐라 하더라도 결국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성장하여 서울대학교에 온 학생들 즉 미래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다고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유아원도 가지 않은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를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교육시키느냐 컨트롤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인성교육 어머니 교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좀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초중고를 힘들게 다니는 아이들을 굳이 밥상머리에 불러서 꾸짖고 교육시키지는 것이 아닌, 어머니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것에 인성교육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런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대학에 와서는 그 인간 안에 이미 그려진 대상을 지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학교수들이 곁에 아무리 다른 색을 색칠해도 그 속의 대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학교수들이 하는 인성교육, 어머니들이 하는 인성교육이 서로 대치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허나 가장 중요한, 베이직한 것은 부모교육입니다.
 - **이인규:** 네 좋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 또한 메모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며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의견에 반론이나 디스커션하고 싶은 부분들을 메모하여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장 대학교수 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일단 말씀 안하신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우한용:** 2013년에 사범대에서 정년을 마친 우한용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대학교 그리고 명예교수 이쪽에서 해야 될 일중에는 학교와 무언가 연관을 지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학문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연구윤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동의)
-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의견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관련된다면, 그리고 서울

대학교 안에서 시작하여 전국 대학으로 번질 수 있다면, 인성교육과 연구윤리를 연계 짓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인규:** 좋습니다.

● **우한용:** 또한 저번 박승재 교수님께서 고충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의 학문영역에서 인성과 연관된 내용을 모색하고 실천방법을 강구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생명과학을 하는 분이 생각하는 인성문제, 문학을 하는 분이 생각하는 인성문제, 자연과학을 하는 분이 고민스러운 인성문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내부에서 영역별로 나누어서 논의를 해 보고,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영역간에 토론을 하고 어떤 실천 가능한 결과들을 얻어내는 것이 한 방법론으로 제시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인규:** 좋습니다.

● **박승재:** 저는 2002년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퇴직한 박승재입니다. 우선 그동안 인성교육 집담회에 개인적인 강의 일정 때문에 처음부터 활발히 참여를 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여 집담회 발제자 여섯 분의 원고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원고들을 읽어보니 우선 아주 읽기 쉽게 쓰여져 있고, 전부 인문사회적인 오리엔테이션의 말씀인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자연과학을 가르쳤는데,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본 학문의 연계에 대해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인성교육 집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고민을 구체화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좋은 계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모임을 할 때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하신 분들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자연과학, 공과대학 등 말이지요. 그런 분들께 잘 말씀드려 그분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 또한 가까운 우리 대학생들에게 부터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 교실 같은 것들도 찬성이고요. 그리고 비단 명예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출신 중 사회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모범이 될 만한 분들을 초청하여 자리를 갖는 것 또한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정진석 대주교님께서서는 본교 공대출신입니다. 진 교수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진교훈:** 네 맞습니다. 졸업은 하지 않으셨지만...

● **박승재:** 정 주교님을 모시고, 그 과의 교수님들을 모시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공대학생들과 함께라도 인생과 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서도 공과대학 졸업 후 신부가 되신 분이 있기도 하고요. 즉 다른 분야에서 훌륭하게 일하지만 알고 보니 서울대학교출신인, 그런 분들을 모셔 와서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인성교육에 대해 강의를 하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인규:** 두 번째 집담회 발제자인 이용태 회장님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김병동:**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김병동입니다. 인성을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촌락 및 집단사회에서 대가족으로서 접하고 교육이 됐습니다. 허나 지금은 핵가족 사회이며, 입시위주 효율위주의 사회생활로 인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만들기까지 한다고 봅니다. 문제의 출발점을 인식하며 그것을 개선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의도 좋지만 그 문제의 극복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할 때 수업이나 강의 의주의 인성 발전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인성은 체험되고 체득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나이를 불문하고 특정한 인성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의실험을 통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인성이 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지, 나쁜 인성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그룹 내의 활동을 통해 체험하여 체득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과학적으로 분류 및 데이터화, 카테고리라이즈화 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 **박승재:** 역할놀이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병동:** 그런 것도 되겠죠. 또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또한 말씀드리고픈 것이, 인성을 공동문화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집단활동을 통하는 것이죠. 스포츠, 합창반, 오케스트라 이런 집단 활동을 통해 그 안에서 룰을 위반 하는 것이나 협동, 선의의 경쟁 등 인성과 관련된 활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많이 생겨서 그 안에서 인성에 대해 체험하고 각자의 느낌을 나누는 문화가 서울대학교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같이 꽃을 기른다든가 하는 공동체적 활동인거죠. 이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도자는 참 중요합니다. 그 교육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 훌륭한 지도자가 왜 어이없는 잘못들을 저지르는지, 그런 원인을 공개적 리스트업 등을 통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심층분석하여 교육자료화 하고 그 극복하는 방안을 내놓는 거죠. 나아가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화 하는 자료로 활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교훈:** 사범대학 명예교수 진교훈입니다. 전 처음 이 인성교육 집담회가 생기며 최초의 발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하지는 못했고 단지 지금 이 시점의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성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다의성,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등의 개념적인 이야기에 그쳤었습니다. 그 당시에 집담회를 하며 사회자와 제가 동의한 바는 많은 이들의 의견을 모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개인의 특정한 견해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공유했습니다. 왜냐면 특정한 학자의 자기 견해만을 강조하면 듣는 사람에게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년 후 수 십년 동안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바로 이 근처 낙성대 성당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초등학교 가톨릭 교사단과 연계한 프로그램,

젊은 가톨릭 신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단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하여 지금은 가톨릭의 양어문화원 교육 이라는 기구에서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관을 통해 인성교육과 관련 약 50회가 넘는 강좌를 했고요. 허나 최근에 절실히 느끼는 것이, 사람들을 모여 강좌를 열고 하는 등의 이런 교육 스타일에 한계가 온 것 같다는 것입니다. 홍보를 하고 여러 유인책을 강구하여도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인성교육에는 여러 방향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잠깐 들면, 독일에서는 인간성의 상실에 대해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츠크바 대학에서도 대학1학년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교육이 인간교육입니다. 독일의 철학 신학과에서도 인간교육이 아주 기초중의 기초 학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성교육에 있어서는 인성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있습니다. 모두 연관이 됩니다마는 말이죠. 이걸 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은 서로 배타적이거나 이질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이어야 하죠. 요즘 문제가 되는 비인간화현상을 타파하고 웰빙,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경제활동이 우리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봅니다. 우리는 역사 이래로 가장 심각한 배금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도 매우 심각하고요. 경제는 중요하지만, 경제 발전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인성을 파괴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으로 경제학에서 경제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좀 더 강화하여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는 음대 미대 등 다양한 예술 단대들이 있습니다. 각 단대에서는 전문 기능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인성적 측면에서의 예술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제가 해당 학과 교수들에게 실제로 건의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점 또한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박승재 교수님께서도 고민하셨듯이, 과학기술과 인성교육의 관계 또한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과학기술은 비인간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기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테크노크라시는 인간성을 파괴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관련 학자분들이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치문제도 심각한데 해당 학자분들은 정치철학은 논의하지만 정치윤리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교교육의 과정이 인지교육이 중심이 되어버려 인성교육이 실종된 것입니다. 교육철학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사와 교육철학을 속성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그 내용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학교교육의 요체가 인성교육이 되어야하는데 그러려면 교사들이 교육철학과 교육윤리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전통에 대한 금지와 올바른 역사관 또한 중요합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 또한 그렇고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걸 생각할 기회를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야합니다. 법이 우리사회에서 주는 문제점에 대

해서는 최대권 교수님께서 잘 소개해주셨습니다. 허나 우리는 아직도 준법정신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준법정신과 인성교육과 연결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규:** 고맙습니다. 다음 분

● **이정인:** 공과대학 명예교수 이정인입니다. 저는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상당히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교훈이라는 이 자료를 한 권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동북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책입니다. 중국대학들이 개방 후, 전문 단과대들이 전부 종합대학으로 재편성 되었습니다. 그 후 사회주의 이념이 자본주의 유입으로 붕괴되자 대학이 철학적인 교육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중국 대학들이 모두 대학교훈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대학의 인성교육 자료로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는 중국의 오래된 교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훈의 기원을 찾아보니, 서양의 대학교훈은 16-17세기부터 시작 되어 왔습니다. 인재양성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부터 미국의 하버드까지 흘러가서 학교의 모토가 된 것이지요. 주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의 자율화에 따라 진리, 자유, 정의 등이 추가된 것입니다. 하버드의 '베리타스', 존스홉킨스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등이지요. 즉 종교적인 색채의 교훈들이 대학 교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국은 배재학당의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가 큰 일을 하고 싶다면 남을 섬겨라'가 그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인의예지' 이런 것들 이죠. 그 안에는 인성교육이 다 깃들여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진선미'이죠. 우리가 어떤 인간을 양성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육사는 '지인용'입니다. 전 인성교육이 우선 대학의 모토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이념 속에 교훈이라는 형태로 다 들어있고 농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발췌하여 풀이해도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겠지요. 중국은 대학교훈을 캠퍼스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크게 붙여놓습니다. 인성교육의 실천적 행동으로써 행하는 것이죠.

● **최대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듀크대와 연세대의 모토이죠.

● **이정인:** 펜실베니아 대학은 법학과 관계가 많아서 '도덕 없는 관념은 소용없다' 이죠.

● **최대권:** 한동 로스쿨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 **이종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교육을 평생동안 받으면서, 연령에 따라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이 병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대학의 인성 교육은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최종태:** 전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 계속 인성교육 집담회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차원에서 공유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 또한 좋은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뜻있는 분들을 모아 공유 프로그램 위원회를 만들어 1년 정도 해야 액션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하는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또 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액션 측면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멘토-멘티 프로그램, 어머니교실 같은 것은 아주 좋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활발한 여성들의 에너지를 참여에 이용하는 것이죠. 서울대학교의 이름으로 공유프로그램을 만들면 여성분들은 분명 반응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과 연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질서와 자유주의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사태, 새 질서에 맞는 방향으로 인성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방향도 전략적으로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 **최대권:** 전 시골출신입니다. 시골출신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인맥과 출신을 떠나 실력만 갖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가. 이런 것들은 연구 윤리와 함께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생각해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구 윤리와 관련된 표절 사건을 관찰한 것도 있었고요. 즉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수의 연구윤리를 먼저 세우지 못하면 외부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교수들의 용역 및 프로젝트 문제 또한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윤리 자체를 우리가 세워봅시다. 이게 가능하다면 한국의 대학의 질서를 세우는데 좀 획기적인 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정인:**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공과대라는 학문 자체가 실사구시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산학에 스스로의 연구를 반영시키지 않으면 힘든 것이지요.

● **최대권:** 연구비와 용역을 잘 관리해야겠지요.

● **이정인:** 그렇습니다. 다만 돈과 관계되어 있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 **최대권:** 윤리가 전제되면 괜찮은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문제이겠고요

● **황경식:** 최 교수님의 제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인성교육의 이론적인 연구를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행동의 공유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천적이고 응용적인 작업인거죠. 이와 관련해 인성교육을 먼저 선행하신 분들이나 집단의 성공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태 회장님께서 많은 학생, 교수님, 교장분들을 대상으로 성공한 사례를 들 수 있죠. 이런 것들의 스테디가 필요합니다.

● **최대권:** 한국의 부정적 인맥 추구현상과 인성은 서로 융합이 되는 개념이라고 봅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이 인맥도 좋습니다. 하지만 때론 그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 **황경식:** 지금 한국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 200여 단체가 됩니다. 정부에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입시에도 반영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된 것이죠. 지금 한국에서 인성교육에 있어서 성공을 하고 있는 단체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버츠프로젝트 즉 덕목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개발

된 것이고 전 세계 30여개국에 퍼져있고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는데, 버츄와 그 버츄를 지켜야하는 이유, 그 버츄를 개발하기 위한 행동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즉 What, Why, How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약 50여개의 버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버츄프로젝트처럼 이런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츄프로젝트는 아주 성공적이고 공군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육군과 해군이 도입중입니다. 이용태 회장님께서 하시는 프로젝트와도 거의 동일하기도 하고요. 여러 버츄들을 계속 체득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가르치려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체험을 말하게 해서 스스로 느끼게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성공사례를 샘플링해서 우리의 매뉴얼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인규:** 마지막에 간사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 **이상준:** 인성교육 집담회 간사 이상준입니다. 제가 작년 5월부터 약9개월 동안 지켜보고 정리도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창기여서 적응이 잘 안된 분위기였지만, 5회 때부터는 감을 잡고 포텐셜이 폭발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6회 때는 아주 집약이 충분하였고, 사유가 무르익은 분위기를 보았습니다. 내발성 강화의 측면에서 우리의 집담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을 해 보면,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대학교 내와 코리아 전체로 나누는 측면, 그리고 촉진자와 교습자로 나누는 측면입니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분위기를 진작해야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학교 내의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1:1 멘토-멘티입니다. 그리고 SNU측면에서 우리가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윤리 분위기 강화 대학교훈 강화 등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자질교육 또한 서울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진자로서 정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전문가 예를 들어 정진석추기경 같은 분을 초청하여 하는 초청강의,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밥상머리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명윤리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교습자로서 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준법정신 그리고 직업윤리는 각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이신 교수님들께 각 직업윤리에 대해 사회를 대상으로 강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학교 내에서만 듣기엔 너무 아까우니까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나뉘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첫째로 인성교육집담회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첫째 외부전문가도 데려오는 것, 둘째 청중들도 명예교수뿐만 아니라 현직교수 학생, SNU 바깥에 있는 모든 전국을 대상으로 하자는 거죠. 지금 집담회의 이름이 서울대학교명예교수협의회 인성교육집담회입니다. 이것을 '서울대학교 인성교육 포럼' 으로 바꾸어 전국적인 포럼으로 발족을 한번 시켜보자는 것이죠. 이런 생각입니다. 이 서울대학교인성교육포럼의 위치는 이와 같습니다. (그림 수정)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이 되는 거죠. 이 강의를 유튜브에도 올리고 실시간으로도

생중계하는 거죠. 전국민적으로 인성교육 분위기를 진작시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안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성교육포럼은 몇 억에서 몇 십 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하려면 말이지요. 그러니 명예교수님들께서 각출하여 시드머니를 오천~일억 정도 만들어 서울대학교인성교육포럼을 출범시키고, 각 기업들에게서 후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집담회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내발성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교육집담회를 마감하고 결실을 맺고 그리고 SNU인성교육 포럼을 발족시키는 시점에서 '인성회복선언'을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의 이름으로 전국적인 인성회복선언문을 만들어서 언론에 대대적인 보도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 **이인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으니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몇 가지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집담회를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액션플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클로즈업 된 것이 학내의 학생들을 위한 멘토-멘티와 어머니들을 위한 공개강좌입니다. 멘토-멘티는 저와 이정인 교수가 CTL의 부탁을 받고 시도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CTL 또한 금년에 예산을 추렴하여 이것을 어떻게 액션화 할 것인가를 논의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조언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명예교수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해야 할 액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코어 멤버가 돼서 노력하기로 합시다. (박수)

● **이인규:** 이제까지 저희가 이야기 한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모두 공감하는 바이므로 연구위원회를 만들기로 합시다. 연구위원회 안에는 공유할 수 있는 공유프로그램 개발문제, 이론적 배경 정립 문제, 매뉴얼 개발, 작년 집담회 성과 정리 이걸 연구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봅시다. 제일 가능한 것은 학내문제로 포커싱했을 때, 서울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멘티의 일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교수협회의 이름으로 학부모 공개강좌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위원회에서 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작년에 했던 집담회를 계속 할 것인가 아닌가를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논의에 부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기타로 우리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액션플랜이 무엇인가를 논의해봅시다. 지금까지는 교수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했지만 이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펀딩 문제를 해결해야겠지요.

● **황경식:** 당연히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멤버십은 광범위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 **이종훈:** 전 찬성합니다
- **이상준:** 일단 준비위원회 개념으로 하나 만드는 건 어떨까요?
- **황경식:**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승하는 것은 어떨까요?
- **이인규:** 좋습니다. 거기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준에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멘토-멘티 문제는 총장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CTL에서 핸들링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장이나 학교 스텝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황경식:** 총장님께 리포트 할 기회를 갖는 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학교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이들 동의함)
- **이인규:** 일차적으로는 이걸 정리하여 보여줄 수 있는 결과로 만들어서 총장과 스텝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테크니컬적 측면에서 말이죠. 안되면 우리끼리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동원에도 브리핑 잘 하면 다시 제대로 서포트를 해줄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자신들의 업적으로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다음에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준비위원회가 빨리 만들어져 작년성과를 정리하는 일들을 빨리 하고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하여 금년 중반쯤에는 멘토-멘티 등의 일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황경식:**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합니다. (이상준 간사에게)
- **이상준:**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복안이 있습니다.
- **이인규:** 좋습니다. 일단은 의견이 다 취합되었다고 보고 간사께서 초안으로 만들면 우리가 보고 코멘트하고 수정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총장과 브리핑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신학기 전에... 그동안 우리가 준비위원회를 만듭시다.
- **이상준:** 학교 차원은 너무 기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강할 테니까요. 총장님께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실망을 안 할 테니까요.
- **진교훈:** 그런 이야기는 위원회가 기획되면 신중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 **최종태:** 간사의 생각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 **이상준:** 서울대학교라는 엄청난 달란트를 받으셨는데 학교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인-**인성교육이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과 안에서 자기 가정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 **최종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명예교수회의 이름입니다. 거기 문제가 생기면 될 일도 되지 않으니 천천히 가야 합니다. 다만 롱텀 목표는 정해 놓아야하는 의미에서는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 **황경식:** 멘토-멘티 상담 어머니교실도 완벽한 매뉴얼 공유는 아니지만 사전 디스

커션은 꼭 필요합니다. 상담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하면 상담자가 문제가 생길 정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이종훈:**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겠지요.
- **최종태:** 그 과정에서 우리 협의회 안에서 내발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 **황경식:** 우리 이인규 부회장님께서 리더로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 **이인규:** 학문영역에 따라서 뷰포인트 액션포인트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다릅니다. 양쪽을 잇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승재:** 다른 사업들을 다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이인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 **최종태:**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큰 목표지요.
- **김병동:** 많은 분들께서 자기 관심영역밖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이인규:** 이정도로 마무리하고 여기 계신 분들 꼭 좀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경식:** 여기 와보니 우한용 교수님과 제가 제일 젊은 축에 속합니다.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 중 젊고 역량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추천하면 좋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 **황경식:** 준비위원회는 약10여명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우한용:** 전 문학 예술일반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인규:** 이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